

우리가 일본과 같은 협상결과를 기대한 것 자체가 "연목구어"의 어리석음 인지 모른다.

이제 농촌은 별 수 없이 벼랑끝에 몰려 서 있다.

지난 여름 사상초유의 극심한 가뭄과 더위로 황폐해질대로 황폐해진 농심은 농촌이 회생할 수 있는 후속조처없이 강행해 버린 WTO 비준안 통과로 하루빨리 탈농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만연되어 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했던 낙농진흥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협동조합을 통한 농촌재건에 부푼기대로 농수축협외 통합과 업종조합 및 지역조합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중앙회의 비대화를 촉진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축협법이 개정되었다.

할말이 없는 세상이다.

이제 유일한 한가닥 희망은 농어촌구조조정자금 42조원과 농특세 10년간 15조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착오없이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낙후된 우리농촌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재원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지만 우리나라 재정형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이므로 한푼이라도 헛되히 쓰여져서

는 안될 것이다.

이런 자금들이 되도록 낙농분야에도 집중투자되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야말로 낙농분야의 전국농민단체인 낙농육우협회가 올바른 정책건의와 낙농가 지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되돌아보면 협회는 많은 낙농가의 무관심과 재정적 어려움속에서도 즐기치게 대정부정책건의와 지도홍보사업으로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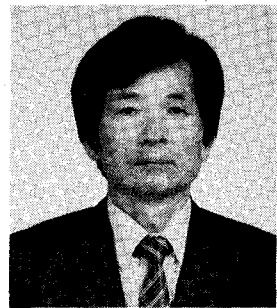
이제는 전국의 모든 낙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단합된 큰힘을 이루어내어 쓰러져가는 한국 낙농을 다시금 굳건한 기반위에 설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이 지난 3년간 협회 임원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한 일 없이 지낸것이 새삼 부끄러워진다.

내년 2월 실시될 임원개선과 회장단 선출에서 눈바로 뜨고 사심없고 유능한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하여 한국낙농육우산업의 발전과 협회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도지회 설립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소사육농민의 위상강화



정 세 훈
본회이사, 전북도지회장

협회 이사직을 완료하는 시점에서 착잡한 심정만 남는다. 가장 급박하게 농축산업의 주변여건과 상황이 변화하는 시기에 중책을 맡아 소임을 다하겠노라

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지만 남는건 역시 아쉬움이다. 제대로 우리 낙농육우인의 요구에 충실하였는지, 당초의 목표와 계획에 일치되도록 활동하였는지 반성을

갖게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농축산업의 역사를 통해 가장 어려운 전환의 시기에 협회 임원직을 맡아 고뇌와 소신을 분명히 갖게한 것도 사실이다. 수입개방, UR협상, WTO 가입비준, 국내낙농육우산업의 안정 대책 마련, 그리고 전국 농민대회등 우리 농정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굵직한 사안들이 터져나왔고, 이를 어떻게 제대로 추진하느냐에 온갖 지혜와 묘안을 짜기에 바빴던 것 같다. 어떻게하면 다소나마 우리 낙농육우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느냐, 우리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에 보탬이 되느냐에 골몰하면서 전체 임원들과 숙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거의 소비하지 않았나 싶다.

때로는 정부 정책입안책임자와 대화를 통해, 때로는 유업체와의 투쟁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도심거리에서의 시위로 그리고 임원진들과 낙농육우지도자들과의 대안마련을 위한 허심탄회한 토론등으로 협회에 참여활동이 전개되었다고 느껴진다. 정부와의 대화에서는 우리농가 요구나 선정과는 너무도 현실감각이 무디고 거리감이 있다는 느낌을 받고는 매번 협회이사회에서 이를 강도높게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그나마 반영된 부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문도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꾸준히 협회는 목표관철을 위해 회장님을 중심으로 앞장서 추진하였고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조성이나 지역행정예의 의사전달등으로 진행하였던 것 같다.

우리낙농가와 유업체와의 마찰이 빚어지는 때도 없지 않았다. 원유대문제로 전북도내 낙농가들이 한자리에 집결하여 우리의 권익을 위해 싸웠던 것도 새롭게 기억된다. 우리 농가들이 뭉쳐서 단합하면 큰 힘이 발휘될 수 있고 반드시 목표달성도 가능하다는 걸 확신시켜주기도 하였다.

UR협상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는 한육우, 낙농문제타개를 위해 재협상요구와 이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농민대회 역시 우리 스스로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전북도내에서 농민의 실망과 분노어린 함성을 무던히도 실려 보냈건만 그 결과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농민의 외침이 없었던들 오늘 이 정도나마 낙농

UR협상에서 가장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는 한육우, 낙농문제타개를 위해 재협상요구와 이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농민대회 역시 우리 스스로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전북도내에서 농민의 실망과 분노어린 함성을 무던히도 실려 보냈건만 그 결과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농민의 외침이 없었던들 오늘 이 정도나마 낙농육우산업이 존속할 수 있었을까 짐작해보면 그 성과는 매우 컸다고 여겨진다. 농민의 결집된 힘이 있는 곳에 정책은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이다.

육우산업이 존속할 수 있었을까 짐작해보면 그 성과는 매우 컸다고 여겨진다. 농민의 결집된 힘이 있는 곳에 정책은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이다.

협회 이사회는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 잇게 마련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고 있다. 이사회에서 위기 상황의 낙농육우산업 안정대책방안이 매번 논의되고 주요한 사안의 방향이 결정되어 정부에 건의하거나 전국의 힘을 모아 추진하여 사실상 전국낙농육우농가의 대변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이 우리 임원 스스로의 이견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개방에 대응한 대책으로 결실맺지 못했다는 점이다. 바로 낙농진흥법의 개정이 그 한 예이다.

농가의 단합을 강조하면서도 임원의 단합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아 가장 가슴아픈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임기중 협회 하부조직의 강화로 명실상부한 전국 소사육농민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고자 도지회 설치를 추진한 것은 큰 성과가 자평하고 싶다. 물론 전북도의 경우 전북도 낙농연합회가 종전부터 활동하고 있었지만, 이를 협회의 도지회 조직으로 공식화하면서 전국 도별 하부조직 기반을 갖춘것은 늦지만 다행히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의 더욱 큰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협회가 5십여만 한우농가와 2만6천여 낙농가의 권익대변단체라고 자처하면서도 재정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권익보호 하자는 것은 스스로 참여하면서 활동하는 가운데 성취되는 결과이다. 또 기본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때 얻어지는 산물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아직도 회비납부를 독려해야 하고,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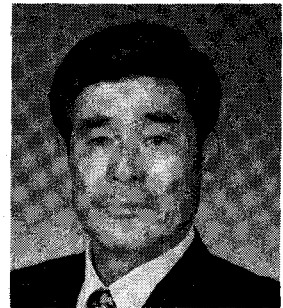
여를 부르짖어야 하는 현실이라면 농가들의 반성과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낙농육우인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많은 과제를 목전에 둔채 임원직을 만기하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만 단합하여 힘을 형성하지 못하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단결력을 발휘하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교훈을 다시한번 음미코자 한다.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하는 해가 되기를



이 상 섭
본회이사. 강원도지회장

밝아오는 올해년을 맞이하여 전국의 낙농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출범과 강대국의 자국이익에 부합되는 각종 라운드의 선언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낙농산업 경쟁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한해였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WTO 무역체제는 열악한 우리의 낙농산업에는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종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각종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법은 제정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과 결과만을 탓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일부 농업 종사자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각자 새로운 삶을 찾아 고향을 등지는

이농현상이 전국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 산업체에서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품질과 기술개발을 통한 세계 제1의 제품 생산만이 유일한 생존권 확보라고 인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하고 있다.

우리가 상심하고 우리의 낙농산업을 포기할 때 세계는 이를 좋은 기회로 포착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것은 뻔한 사실이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1월 APEC회의 참석 후 발표한 세계화 정책은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모든 제도과 의식의 구각을 벗고 세계화를 겨냥할 때 보장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때 우리 소사육농가도 세계화를 위한 경